

꽃이 피고 지듯이 그리고 꽃이 향기를 남기고 떠나듯이 아름답게 사는 일,
오늘 나는 그렇게 살고자 두 손을 모읍니다.

- 성전스님 -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30일 발표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천식 평가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 비율이 주요 항목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확장제 처방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호흡기 질환에 대한 표준 치료와 진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경과 김동억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이 뇌경색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성 뇌 백질변성의 악화가 ‘전두-두정엽 중심형’, ‘방사형 확장형’, ‘측두-후두엽 중심형’의 3가지 뚜렷한 진행 경로를 따른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인 뇌졸중 환자 1만 명과 영국 정상인 4만 명의 뇌 MRI를 기계학습으로 분석, 성별 및 위험인자에 따른 뇌 백질 변성 악화의 경로 차이를 규명했다. 이 세 가지 진행 경로는 뇌경색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전두-두정엽 중심형은 재발 위험이 높았고, 측두-후두엽 중심형은 뇌출혈 부작용으로 예후가 나빴다. 특히 현재의 MRI 소견만으로도 향후 진행 패턴을 예측할 수 있으며, 건강한 일반인의 뇌경색 발병 예측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1저자인 정진용 박사는 “의료 AI 기업과 협력하여 뇌 백질변성 진행 경로를 예측하는 ‘뇌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환자 진료 및 건강검진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억 교수는 “개인별 진행 경로를 정밀하게 파악하면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제30대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선출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가 지난 10월 24일~2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된 제53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권범선 교수는 2027년 11월부터 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이다. 권범선 교수는 “회장직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며, 재활의료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재활로봇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맞추어 재활 의학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형외과 추교빈 전공의, 대한미세수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성형외과 추교빈 전공의(지도교수 어수락)가 지난 10월 25일 대한미세수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Removal of soft tissue foreign bodies in the hand under microscopy: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로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수술 기법을 통해 수부(손) 내 이물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새로운 임상적 접근법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1저자는 추교빈 전공의, 교신저자는 어수락 교수가 맡았으며, 본 연구는 권위 있는 학술지 Archives of Hand and Microsurgery에 게재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병원-다학제 협력 생태계 구축, 융합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31일 동국대학교 바이오캠퍼스 상영바이오관 8층에서 ‘AI-Driven Healthcare Innovation Forum 2025’를 주제로 융합포럼을 개최했다. AI 헬스케어 및 의료 분야의 최신 융합 트렌드를 공유하고 활발한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포럼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백용해 병원장)과 AI헬스케어&윤리연구소(신성준 소장), 디지털의료AI연구소(남기창 소장)가 주관하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공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이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9명의 연사들이 AI 헬스케어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의·한협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모색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10월 27일 ‘의·한 협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동일 한방병원장, 경기도 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추원호 파주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양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2025 진관사 국행수룩재, 의료지원 동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서울 진관사에서 봉행된 ‘광복 80주년 기념 2025 진관사 국행수룩재에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기간 동안 안전하고 원만한 회향을 위해 함께했다. 의료지원팀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백용해 병원장이 직접 수룩재에 참석해 헌화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불교종립병원으로서 자비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며,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지원과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환자경험평가 교직원 응원 캠페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PI실은 2025년 5차 환자경험평가(6월~12월) 기간 중인 지난 10월 28일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백용해 병원장, 박완임 간호부장, 이광훈 진료부장, 환자경험평가 TFT 위원 등 20여 명은 전 부서를 방문해 격려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백용해 병원장은 “평가까지 남은 두달간 힘내어 환자경험평가 1등급의 목표를 함께 이루자”고 말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치유 템플스테이’ 진행

경기북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10월 24일~25일 유·사산 경험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1박 2일 ‘치유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유산으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완화 및 부부 관계 회복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목표로 참가 부부는 명상, 부부 미술테라피, 타중, 차담회 등 봉선사의 고요한 환경 속에서 다채로운 치유 활동을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412명** 기간 ▶ 2025. 10. 1. ~ 10. 31.

故 벽진 자성스님	200,000,000
민*현 님	100,000,000
전국여성불자회 메타프랜즈	13,100,000
성법스님	10,000,000
라경훈(차필선)님	10,000,000
혜선스님	10,000,000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님	5,000,000
선*스 님	5,000,000
진호스님	1,000,000
손묘경 님	1,000,000
도제스님	1,000,000
외 402명	(단위 : 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문의 ▶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